



광주시양궁협회 소속 이승윤이 광주 남구 국제양궁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이승윤은 서울시청에서 이적하고 광주 남구청으로 소속을 옮기려 했으나 팀 창단이 무산되자 현재 광주시양궁협회 소속 선수로 훈련하고 있다.

광주 남구청 남자양궁팀 창단 '표류'

시의회 문턱 못 넘고 장기 지연 이승윤 등 선수 4명 진로 불투명 남구청 "내년 반드시 창단할 것"

광주 남구청 직장운동경기부 '남자양궁팀' 창단이 장기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팀 창단 약속을 믿고 합류한 선수들의 진로도 덩달아 불투명해지고 있다. 16일 남구청과 광주시 양궁협회 등에 따르면 남구청 직장운동경기부 '남자 양궁팀'이 애초 올해 1월 창단될 예정이었다. 남구는 지난해 광주국제양궁장을 활용하고 각종 국제대회 유치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팀 창단에 나섰다. 스포츠 인재의 타 지역 유출 방지와 지역 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 순기능이 크다는 평가도 팀 창단에 힘을 실었다.

남구는 "현재 삼육초가 국제양궁장에서 체육수업을 하고 있고, 남구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제양궁장 무상 사용이라는 장점과 운영비 내에서 숙소·차량 지원이 가능한 만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실업팀 대비 적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어 팀 창단에 나섰다"고 말했다. 광주시체육회, 광주시양궁협회도 남구청 양궁팀 창단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시체육회는 열악한 남구 재정 상황을 감안해 운영비 2억원 지원을 약속했다. 시장 공약회는 남구 양궁 세계랭킹 1위 이승윤을 비롯해 국가대표 유망주 이진희, 광주체고 출신 김승윤, 광덕고 출신 임지완 등 4명을 영입, 선수단을 꾸렸다. 하지만 창단 계획안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난 1월 창단체획이 무산됐다. 선수들은 현재 남구청의 창단 의지를 믿고 반토막 난 예산으로 올해 근근이 훈련하고 있다. 선수들은 사실상 소속팀이 없는 상태다. 이들은 팀 창단이 지연되자 현재 광주시 양궁협회 소속 선수로 경기에 출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선수들은 성과를 내고 있다. 2016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이승윤은 2021도쿄올림픽 양궁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5위로 통과, 올림픽 2회 연속 금메달 도전 기회를 잡았다. 이승윤은 "현재 소속팀이 없어 숙소도 없이 힘들게 훈련하는 동료들을 볼 때 안타까움을 느낀다. 빠른 시일내 좋은 소식이 전해져 마음 편하게 훈련에만 전념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남구청은 내년에는 반드시 팀을 창단한다는 각오다. 하지만 이번에도 팀 창단이 무산된다면 남구청의 창단 약속만 믿고 소속 실업팀을 떠나 광주에 온 선수들은 '미야'가 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체육계에서는 "팀도 없이 갈 곳 잃은 선수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남구청과 남구의회와의 대승적 결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글·사진=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최근 70년 스위스 최고 스포츠 선수 '테니스 황제' 페더러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39)가 1950년 이후 모든 종목 통틀어 스위스 최고의 남자 스포츠 선수로 선정됐다. 스위스 라디오 앤드 티비(SRF)는 해마다 선정하는 '올해의 선수'를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뽑지 않는 대신 시청자들과 역대 수상자를 대상으로 1950년 이후 최고의 남녀 선수를 가리는 투표를 진행했다. SRF는 "투표 결과 남자 선수 부문에서 페더러가 49.1%의 득표율을 기록, 크로스컨트리 선수인 다리오 콜로나(12.8%)와 스키 선수 피르민 주브리겐(11.9%)을 여유 있게 앞섰다"고 이번 주 초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발표했다. 최근 70년간 최고의 스위스 여자 스포츠 선수로는 스키 선수인 브레니 슈나이더가 40%를 득표해 15.9%인 역시 스키 선수 에리카 헤스를 따돌렸다. 페더러는 시상식장에서 "제가 이 상을 받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승리자들"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근 70년간 스위스 스포츠 최고의 팀으로는 2018년 세계선수권에서 준우승한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2009년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승한 남자 축구 대표팀을 제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연합뉴스



막을테면 막아봐! 16일 덴마크에서 열린 2020 유럽 여자 핸드볼 선수권대회 헝가리와 노르웨이 경기에서 노르웨이 선수가 몸을 날리며 슈트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메이저 퀸' 김아림·포포프 LPGA 최종전 제외 이유는 우승 당시 비회원이어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20시즌 최종전인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이 17일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에서 개막한다. 이 대회는 2020시즌 한 해 동안 LPGA 투어에서 낸 성적을 포인트로 환산한 CME 글로벌 레이스 순위 상위 70명만 출전하는 '왕중왕전' 성격을 띠고 있다. 우승 상금이 올해 열린 대회 가운데 가장 많은 110만 달러(약 12억원)나 되고, 현재 CME 글로벌 레이스 순위와 관계없이 이 대회에서 우승하는 선수가 올해 CME 글로벌 레이스 챔피언이 된다. 메이저에 버금가는 '특급 대회'인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이지만 올해 열린 네 차례 메이저 대회 우승자 가운데 2명은 이번 대회에 나오지 못한다. 바로 15일 끝난 US여자오픈 우승자 김아림(25)과 8월 AIG 여자오픈을 제패한 조피야 포포프(독일)가 시즌 최종전에 제외된 '메이저 퀸'들이다. 골프채널, 골프다이제스트, 골프워크 등 미국 골프 전문 매체들은 16일 이들이 시즌 최종전에 나오지 못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들이 메이저 대회 우승 당시 LPGA 투어 회원이 아니어서 메이저 우승에 따른 CME 글로벌 포인트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포포프의 경우 AIG 여자오픈에서 우승하면서 625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비회원이었기 때문에 점수를 받지 못했다. 이후 LPGA 투어 회원이 된 포포프는 잔여 대회에서 282점을 추가하고도 결국 CME 글로벌 레이스 순위 82위에 그쳐 70위 내 진입에 실패했다. 만일 AIG 여자오픈 우승으로 625점까지 획득했다면 그의 순위는 16위로 시즌 최종전에 넉넉히 진출할 수 있었다. 김아림 역시 마찬가지다. US여자오픈 우승으로 CME 글로벌 포인트 625점을 받았다면 단숨에 30위권에 진입할 수 있었다. 김아림은 21일까지 LPGA 투어 멤버십을 신청할 경우 2022년까지 LPGA 투어 출전권을 얻을 수 있다. 올해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는 US오픈 3라운드까지 선두였던 시부노 히나코(일본) 역시 LPGA 투어 비회원이라 참가 자격이 없고, 시즌 하반기부터 LPGA 투어 대회에 나갔던 박성현(27), 이정은(24)도 포인트 순위 70위 안에 들지 못해 불참한다. /연합뉴스

'장타 여왕' 김아림 우승 비결은 '체육관 훈련'

1주일에 3일 강도 높은 체력훈련 장타력에 아이언샷 정확도 향상 미국 원정 중에도 훈련 안 빠트려

US여자오픈에서 깜짝 우승한 김아림(25)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피지컬로는 최고로 꼽힌다. 175cm의 큰 키에 70kg이 넘는 체격은 타고났다. KLPGA투어에서 최장신은 아니지만, 균형 잡힌 체격이라면 김아림을 뛰어넘는 선수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김아림의 장타력은 이런 타고 난 체격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김아림은 KLPGA투어 선수 가운데 체육관에서 체력 훈련을 가장 열심히 하는 선수로 유명하다.

김아림의 운동량은 어마어마하다. 시즌 중에도 일주일에 사흘은 체육관에서 1시간 30분씩 땀을 흘린다. 어떨 때는 체육관 운동을 일주일에 나흘씩 할 때도 있다. 웨이트트레이닝과 인터벌 유산소 운동, 그리고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스트레칭 등은 강도도 여간 높은 게 아니다. 대회 때 김아림이 라커룸에서 혼자 맨손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칭하는 모습은 선수들에게는 익숙하다. 골프 선수가 아니라 복싱 선수 같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김아림은 체력 훈련과 스트레칭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김아림이 이렇게 체력 훈련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근육의 양과 질, 그리고 체형의 균형은 장타력뿐 아니라 모든 스윙 기술의 원천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김아림의 훈련을 맡은 최차호 관장은 "김아림은

웨이트트레이닝을 밥 먹는 것처럼 꼭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최 관장은 3년째 김아림의 운동 프로그램을 짜고, 체육관에서 운동을 지도하고 있다. 김아림이 작년부터 부족한 아이언샷 정확도가 높아진 비결도 이런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이다. 힘이 붙은 김아림은 아이언 샤프트 무게와 강도를 남자 선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아이언 샤프트 무게와 강도가 높아지면 샷이 좌우로 흩어지는 현상을 확 줄였다. 2017년 30위 밖이었던 그린 적중률은 샤프트를 남성용으로 바꾼 2018년과 작년에는 10위권으로 올라서더니 올해는 19위에 올랐다. 근육은 드로, 페이드 등 다양한 구질을 구사할 수 있게 된 밑바탕이 됐고 아이언을 자유자재로 다룰 힘도 제공했다. 최 관장은 "근육을 길러놓으면 견고한 스윙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특히 경기 막판까지 지지 않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김아림은 이번 미국 원정 기간에도 체력 훈련은 빠뜨리지 않았다. 다만 체육관 장비를 쓰지 않고 맨몸 웨이트트레이닝을 배워 갔다. 낯선 체육관 장비를 함부로 다뤄다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다. 매일 빠짐없이 맨몸 웨이트트레이닝을 소화하며 체력을 유지한 김아림은 전장이 길면서 그린이 빠르고 단단한 난도 높은 코스에서, 비와 바람에 추위까지 겹친 약천후 속에서 치른 US여자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마지막 3개 홀 연속 버디로 역전 극을 썼다. 16일 귀국해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김아림에게 최 관장은 집에서 수행할 운동 프로그램을 건넬 예정이다. 최 관장은 "강도는 높지 않다. 아직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격리가 끝나면 김아림은 내년을 위해 또 강도 높은 체력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할 게 틀림없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조제
2관	도굴
3관	언플랜드
4관	조제
5관	런
6관	이웃사촌
9관	이웃사촌
7관 씨네커튼	러브 액츄얼리, 레벨 16
8관 씨네커튼	리플레이, 호프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시간 속의 도시

초연 21회

광주문화예술회관 작가지원 공모전시
시간 속의 도시
2020. 12. 3.(목) ~ 27.(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김태민속의 미녀

광주시립발레단 제127회 정기공연
잠자는 숲 속의 미녀
2020.12.18.(금) ~ 2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선우예린 피아노 리사이틀

GAC기획공연 - 피아노
선우예린 피아노 리사이틀
2020. 12. 30.(수)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